

# “선생보다 더 선생 같았다고요? 좋은 순간이 너무 많아서겠죠!”

‘블랙독’ 배우 이창훈

서현진 옆 생물선생 역할  
“시청자들 반응 좋지만  
완벽한 타인이 된다는 건  
믿지 못하는 편이에요”



“연극은 허공을 보며 ‘저기 별이 있다’ 하면 관객들이 모두 별의 존재를 믿게 되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마법 같은 순간들이 있거든요. ‘블랙독’을 한 시간도 가장 연극적인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11일 용산구 한남동 미스틱스토리 사옥에서 만난 배우 이창훈(40·사진)은 지난 4일 종영한 tvN 월화드라마 ‘블랙독’을 이렇게 추억했다.

이창훈은 낯설 좋은 평화주의자인 생물 과목 정교사 배명수 역을 맡아 시청자들로부터 ‘생물 선생님보다 더 생물 선생님 같다’ ‘어디서 선생님 하는 분 데려온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얻었다. 그 이전엔 극단 선배 추천으로 맺게 된 안판석 PD와의 인연으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2018), ‘봄밤’ (2019)으로 눈도장을 찍었다.

“주변에서 진짜 선생님 같다는 반응이 많다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전 완벽한 타인이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편이에요. 나 자신의 모습에서 출발하면 그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고, 정답은 내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할 법한 것들이 인물이랑 맞아떨어졌을 때 일상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이창훈은 “선생님처럼 보이려고 선생님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지는 않았다”면

서도 “촬영장에서 집중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감초 역할이긴 하지만 너무 가볍게만 표현되면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방해될 것 같아 선생님의 기본 소양을 매 순간 잃지 않으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본인은 “배명수처럼 오지랖이 넓지는 않다”면서도 “배명수가 가지고 있는 근원을 알 수 없는 편안함을 좋아한다. 갖고 싶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개인적으로는 고하늘(서현진 분)이 대치고 정교사 면접을 보기 전 ‘이제 시간이 됐으니 얼른 내려가라’고 말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예상치 못하게 현진이가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묘하면서 뻗속까지 들어올 정도로 그 순간이 너무 기뻐요. 일상의 서현진

과 극 중 고하늘의 모습이 다 와 닿았어요. 배우 서현진을 매번 신뢰할 수 있었죠. 배우들끼리는 되게 소중한 일인데 빈번히 겪는 일은 아니에요.”

진학부 선생으로 함께 호흡을 맞춘 배우들에 대해서는 “라미란 누나 주도로 진학부 4명이 시간을 많이 보냈다. 좋은 순간이 너무 많았다”고 했다. 드라마 전체를 통틀어 돌아봐도 가장 좋았던 것으로 그는 ‘함께한 사람들’을 꼽았다.

“연극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인물을 했어요. 배명수는 사람 자체가 좋은, 어떤 수 더럽고 편한 사람이지만 공연하면서는 사이코패스 역도 하고 게이 역도 했거든요. 새로운 역에 도전하고 싶은 욕심보다는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이야기로 만났으면 하는 욕망이 큼니다.” /연합뉴스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감독·각본·국제영화상 등 4관왕을 차지한 영화 ‘기생충’ 팀이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오스카 효과 통했다 ... ‘기생충’ 북미 박스오피스 4위로 경총

국내에도 재관람 열풍

재개봉 좌석 판매율 1위

북미 극장가에 오스카 효과가 시작됐다.

지난 9일(현지시간)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상을 휩쓴 ‘기생충’이 하루 만에 북미 박스오피스 순위가 12위에서 4위로 경총 뛰어올랐다.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기생충’은 시상식 다음날인 10일 총 50만1222달러

(5억9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기생충’은 지난해 10월 개봉한 뒤 줄곧 10위권 밖에 머물렀으나 아카데미 시상식이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순위가 상승해 시상식 당일에는 12위를 기록했다.

북미 배급사 네온은 상영관 수를 현재 1060개에서 이번 주말 2000개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어서 ‘기생충’은 외국어 영화로는 이례적인 흥행 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생충’이 최종 4500만~5000만 달러(592억원) 매출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북미

수입은 약 3600만달러다.

국내에도 재관람 열풍이 인다. 지난 10일 재개봉한 ‘기생충’은 이를 만에 1만명을 불러모아 박스오피스 5위를 차지했다.

전날 좌석 판매율은 25.8%로, 현재 상영 중인 전체 영화 가운데 가장 높다.

CGV는 전국 30개 지점에서 ‘기생충’ 특별전을 진행 중이며 롯데시네마도 오는 25일까지 전국 30개 지점에서 ‘기생충’을 재상영한다. 26일에는 ‘기생충’ 흑판이 다시 내걸린다. /연합뉴스

## 주한미군 ‘미스터 션샤인’ 열풍...에이브림스 사령관 ‘강추’

미국에서 오스카상 4개 부문을 석권한 영화 ‘기생충’ 열풍이 부는 가운데 주한미군 사이에서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 ‘강력추천’ (강추) 작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트위터에 따르면 주한 미8군사령부 작전부사령관인 패트릭 나흐 소장은 자신의 계정에서 미스터 션샤인이 방송

되는 TV를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로버트 에이브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해당 트윗을 리트윗하며 “의무적으로 요구되지는 않는다 (Not quite legally required). 강력히 권장하는 것에 가깝다. 보게 되면 기쁠 것”이라고 했다.

미스터 션샤인은 신미양요(1871년) 당시 미 군함에 승선해 미국으로 떨어진

한국인이 미군 장교가 돼 조선에 주둔하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조국으로 돌아온 유진 초이(이병헌 분)는 고애선(김태리 분)을 만나고, 항일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한다. 유진 초이를 돕는 미군 장교가 등장하기도 한다.

최종회 시청률 18.1%(유료가구)를 기록한 미스터 션샤인은 지난해 10월 부산 국제영화제 아시아콘텐츠어워즈에서 베스트 크리에이티브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 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더 게임:0시를 향하여(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동행(재) 55 UHD 스텀(재)	00 포레스트(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우아한 모녀(재)	00 12 MBC 뉴스 20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50 뽀뽀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토크 토크형식
[1]	00 사랑의 가족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푸르기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테데루 테디베어 마을의 비밀 25 출동! 애니멀 레스큐 40 영동발달 공순이와 친구들 5 55 숲속 친구 스토리즈			00 뉴스브리핑
[3]	10 이웃집 찰스(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나쁜사랑(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스페셜	00 기분 좋은 날	00 테마스페셜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시노스톤 프라임 30 주간연예수첩	00 5 MBC 뉴스 25 양코르 특집 VR 휴먼 다크 너를 만났다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최강 1교시(재)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45 닥터 365 50 건강한 토코소 내 몸을 부탁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더 게임:0시를 향하여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다크 인사이트 55 더 라이브	00 포레스트	05 포구만리 스페셜	00 맛남의 광장
[11]	35 UHD 스텀 40 KBS 네트워크 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05 100분 토론	5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나는 트로트 가수다	45 나이트라인

### EBS1

07:00 출동! 슈퍼핑크	13:00 다크 시선	18: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3:5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19:00 미라클러스: 레이디비그와 블랙렛
08:00 똥동맹 유치원	14:45 다크동화 달팽이(재)	19:30 생방송 판다다
08:30 미니특강대 슈퍼공룡파워	14:5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20:00 4남매 쇼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0 출동! 슈퍼핑크(재)	20:30 자이언티 팽TV
09:0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5:25 트리푸름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30 다크동화 달팽이	15:55 미니특강대 슈퍼공룡파워(재)	<마그레브의 골목길 북아프리카 -모험의 땅 그곳으로>
09:40 아용명령 귀여이2	16:10 예술아 놀자	21:30 한국기행
10:00 지식의 기쁨	16:25 페퍼 피그(재)	<그 겨울, 내 곁에 4부 그 집 아궁이 불타오르네>
10:30 한국기행(재)	16:40 똥동맹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21:50 다크 시선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2:45 심어즈:시대와 함께 울고 웃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워든지 뮤직박스	23:3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12:00 EBS 정오뉴스	17:3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재)	
12:10 오늘 뭐하고 놀지?	17:45 올리 앤 문(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3일(음 1월 20일 丙戌) ☎ 010-9790-8237

<p>36년생 한정하지 않는다면 통제하기 힘든 형제이니라. 48년생 복합적이거나 다기능의 선택이 용이하다. 60년생 서로 들어맞지 아니하여 애를 먹는 모양새가 전개 된다. 72년생 예상했던 바보다 훨씬 복잡하고 난해해지겠다. 84년생 대접 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는 날이다. 96년생 원인을 분명히 따져봐야만 바로 잡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1, 96</p>	<p>42년생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 정성을 다 하라. 54년생 망각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크게 당황할 수도 있겠다. 66년생 유혹을 뿌리치고 매 한 가지로 나아가자. 78년생 맹목적이거나 오류를 낳을 뿐이다. 90년생 핵심 사항을 간과한다면 실기로 이끄는 요인을 만든다. 02년생 명분에 사로잡힌다면 손실을 낸다. 행운의 숫자 : 36, 89</p>
<p>37년생 장소를 함께 하고는 있지만 마음은 따로따로이다. 49년생 후회할 때는 이미 늦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61년생 시세와 국량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야 할 때가 되었느니라. 73년생 뜻이 곧다면 이루고야 말리라. 85년생 모르고 있는 것이 백만 나을 뻔한 상황이다. 97년생 새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47, 63</p>	<p>31년생 모든 일에 우선해야 하느니라. 43년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55년생 결실이 알차다. 67년생 무난하게 진행 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79년생 무르익어 가고 있으니 만사형통하리라. 91년생 무리가 따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8, 84</p>
<p>38년생 망심하고 있다면 연쇄적인 현상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50년생 참신한 기법이 성과의 가치를 높여주는 국량이다. 62년생 결실이 의외로 미진해졌다. 74년생 차질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86년생 타산지석의 격이므로 남의 일에서 교훈을 얻을 수다. 98년생 다음 코스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85, 79</p>	<p>32년생 무리한 방법은 피하고 봐야겠다. 44년생 미리 서둘러야만 한다. 56년생 상대에 따라서 반응의 차이가 큼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68년생 변화가 있을 것이니 이에 대비하라. 80년생 별도로 설정해 두는 것이 유리 하리라. 92년생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이니라. 행운의 숫자 : 18, 86</p>
<p>39년생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체념하는 것이 낫다. 51년생 소임은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느니라. 63년생 지속 시간이 길어질수록 효과 역시 점점 커질 것이니라. 75년생 돈의 운용에 따라서 길흉이 좌우 되리라. 87년생 안심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99년생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02, 95</p>	<p>33년생 보기와는 달리 실적이 있을 것이니 기대해도 된다. 45년생 지금, 본때를 보여줘야 할 때가 되었다. 57년생 복잡하여 가능하기가 애매할 것이다. 69년생 본격적인 귀도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81년생 본바탕이 튼실해야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93년생 상대가 부담스러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기술이니라. 행운의 숫자 : 30, 78</p>
<p>40년생 말없이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인다. 52년생 뜻을 깊이 없어서 막막해졌다. 64년생 우려할 만한 일이 보이니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76년생 돌발적인 국세를 이룰지도 모르니 침착해야 한다. 88년생 불경쟁이 추진하던 일에 차질을 줄 수 있다. 00년생 두 얼굴의 속성사에서 갈등이 심화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09, 65</p>	<p>34년생 학습고대하여 왔던 것을 처리 하리라. 46년생 부수적인 일에 얽매이지 말고 주된 요건에 충실하자. 58년생 부족하면 반드시 채워 줘야만 하느니라. 70년생 분명한 구상을 실패를 이끄는 실마리가 될 뿐이다. 82년생 불완전한 구상은 실패를 이끄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94년생 불확실한 사실을 가정하여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행운의 숫자 : 23, 71</p>
<p>41년생 드디어 제대로 기량을 발휘 할 때가 되었다. 53년생 똑 같은 정황이 번갈아 가며 반복되는 형상이다. 65년생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니 박차를 가하라. 77년생 막상 임하고 보면 별 것이 아님을 알리라. 89년생 막혀왔던 물꼬가 트이리라. 01년생 만회할 수 있는 호기가 도래하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1, 62</p>	<p>35년생 비웠을 때 더 많이 채워지는 법임을 명심하라. 47년생 사재를 참고한다면 도움이 된다. 59년생 사소함에서 벗어났을 때 큰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라. 71년생 사정을 헤아려서 무리하지 않게 처리 해야겠다. 83년생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 것이니 이를 감안하고 임하라. 95년생 상대는 기본 포석을 간 채 접근하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27, 54</p>